

OPINION

선임연구위원
최순영

글로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

최근 대형 글로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사업 준비와 참여가 빨라지고 있다. 그간 가상자산에 있어서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 등의 글로벌 금융회사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며, 이는 가상자산의 불명확한 법적 지위와 높은 가격변동성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글로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에 대한 태도 변화는 고객의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사업은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리서치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 전문 인력 및 기술 확보를 위해 관련 핀테크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관투자자와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련 트레이딩 및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에도 나서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혁신은 핀테크 기업들이 이끌고 있으나, 가상자산 시장이 규모나 발전도 측면에서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올라섰으므로, 글로벌 금융회사의 진출로 인해 향후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형 글로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이 눈에 띈다. 그간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JP모건(JP Morgan) 등 글로벌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에 대해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혀왔다. 가상자산의 불명확한 법적 지위와 더불어 과도한 가격변동성이 주된 이유다. 대표적으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 회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꾸준히 표명해왔다.¹⁾ 그러던 JP모건이 최근에 들어서는 가상자산 관련 기술 투자와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자체적 가상자산인 JPM 코인을 발행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글로벌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수요가 공급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기관투자자 및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글로벌 금융회사도 고객 유치·유지 차원에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제공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가상자산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은 금융업 전반에 걸쳐 그 활용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다이먼 회장은 2014년 다보스 포럼에서 비트코인은 가치저장 수단으로 매우 형편없고("terrible")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비난하고, 2021년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s annual membership meeting에서도 비트코인은 쓸모없다("worthless")라고 비판했다.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어 글로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기술에 대한 투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및 JP모건을 중심으로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사업 움직임을 점검해 본다.

가상자산 사업 역량 구축

글로벌 금융회사는 여러 방면에서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준비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전담 부서 구축에 나서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2021년 3월 기관투자자 고객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트레이딩 부서를 설립했으며, 이는 미국 대형은행 최초의 가상자산 전담 트레이딩 부서로 알려져 있다.²⁾ 모건스탠리 또한 2021년 9월 가상자산 전담 연구조직을 신설하였으며, 해당 조직은 우선적으로 가상자산이 전통적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³⁾ 앞서 JP모건의 경우 2020년 10월 디지털자산 전담 사업부 Onyx를 신설하였다. Onyx 사업부는 자사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인 JPM 코인의 발행 및 관리와 더불어 블록체인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을 위해 100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였다.

글로벌 금융회사는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관련 기술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시장 조사 기관 Blockdata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및 JP모건은 각각 2억달러 이상을 가상자산·블록체인 전문 핀테크 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추정된다. 골드만삭스의 경우 가상자산 시장데이터 분석 및 블록체인 서비스 업체 Coin Metrics, 기관투자자에게 스테이킹 및 노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인프라 스타트업 Blockdaemon을 비롯해서 7개 주요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모건스탠리의 주요 핀테크 투자에는 비트코인 회사 NYDIG, 블록체인 엔터프라이즈 기술 및 서비스 제공사 R3, 증권형토큰 보관전문사 Securitize 등이 포함된다. JP모건 또한 분산원장 전문사 Axoni, 블록체인 분석 및 자금세탁방지 솔루션 기업 TRM Labs 등 다방면의 투자에 나서고 있다.⁴⁾ 글로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는 재무적 측면과 더불어 해당 분야에 대한 기술 및 사업 역량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다.

2) 골드만삭스는 2018년에도 가상자산 트레이딩 데스크를 출범했으나 한동안 이를 중단하고 2021년에 데스크를 재개했다.

3) Cointelegraph, 2021. 9. 15, Morgan Stanley launches cryptocurrency research team.

4) JP모건의 TRM Labs 전략적 투자는 2022년 3월에 이루어졌다.

〈표〉 글로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투자 현황

금융회사	추정 투자금액 (백만달러)	주요 투자 대상
골드만삭스	2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xoni · HQLAx · R3 · Coin Metrics · Circle · Blockdaemon · Veem
모건스탠리	2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YDIG · R3 · Securitize
JP모건	2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xoni · ConsenSys · Digital Asset · R3 · HQLAx

주 : 2021년 8월 기준

자료: Blockdata

가상자산 자산관리 서비스

가상자산 투자를 자산관리 사업에 접목하는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다. 가상자산에 투자하거나 포트폴리오를 헤지(hedge)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글로벌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가상자산 투자는 기관투자자 및 초부유층 고객으로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 이는 가상자산 투자에 수반되는 고위험과 더불어 높은 최소 투자한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글로벌 금융회사 중에서는 모건스탠리가 처음으로 자산관리 사업에 가상자산 투자상품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모건스탠리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최소 2백만달러, 기관투자자의 경우 최소 5백만달러의 자산을 6개월 이상 모건스탠리에 예치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가상자산 펀드에 투자를 허용한다. 나아가, 고객이 보유 자산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상자산 펀드 투자는 총 자산의 2.5%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모건스탠리는 자산관리 고객에게 3개의 가상자산 펀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중 Galaxy Bitcoin Fund와 FS NYDIG Select Fund는 최소 2만 5천달러, Galaxy Institutional Bitcoin Fund는 최소 5백만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⁵⁾ JP모건의 경우 2021년부터 모든 자산관리 고객에 대해 가상자산

5) CNBC, 2021. 3. 17, Morgan Stanley becomes the first big U.S. bank to offer its wealthy clients access to bitcoin funds.

펀드 투자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다만 자사 자문업자가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할 수 없으며, 고객이 먼저 투자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⁶⁾ 또한, JP모건은 고액자산가 대상 자체 비트코인 패시브 펀드도 출시하였다.⁷⁾ 골드만삭스는 2021년 7월에 DeFi 및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ETF를 출시하기 위해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22년 3월 SEC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이더리움(Ethereum) 펀드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할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펀드는 골드만삭스의 제휴사인 Galaxy Digital이 운영하는 Galaxy Institutional Ethereum Fund로 최소 투자금액이 25만달러다. 골드만삭스는 가상자산 펀드 투자를 위한 최소 자산금액 등에 대한 기준은 발표하지 않았으나, 골드만삭스의 자산관리 사업은 통상 250만달러 이상의 고액자산가 및 기관투자자를 주요 고객층으로 두고 있다.⁸⁾

결론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변동성, 법적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 등 여러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회사도 그간 취해왔던 보수적 입장을 선회하여 가상자산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아직 글로벌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가상자산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는 높은 위험도를 감수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 및 고액자산가가 대상이다. 또한, 규제적 제한으로 인해 제공할 수 있는 가상자산 상품도 한정되어 있다. 가상자산 펀드의 경우 아직은 가상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선물이나 가상자산 관련 기업으로 국한되어 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대형 금융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은 확대되고 시장에서의 입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점진적으로 가상자산의 법적지위, 투자자보호 등 가상자산을 둘러싼 규제체계가 보다 명확해지고, 가상자산에 대한 실적 및 데이터의 축적과 리스크 관리 기법의 고도화에 따라 글로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사업 범위도 비례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심화될 마련이다. 국내의 경우에도 시장형성 및 규제마련에 있어서 정도와 속도의 차이는 있으나,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은 금융투자업의 중요한 사업 영역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금융투자사들도 가상자산에 대한 역량 구축과 사업 전략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6) Reuters, 2021. 7. 23, JPMorgan to give all wealth clients access to crypto funds-Business Insider.

7) Nasdaq, 2021. 8. 4, JPMorgan launches in-house bitcoin fund for private bank clients.

8) Forbes, 2021. 4. 5, Goldman Sachs cryptocurrency endorsement boosts wealth management.